

# 위기의 오리산업 돌파구는

의무자조금 8년차, 어려운 환경속에서 정착되어 가는 오리자조금  
오리산업 주인의식 고취시켜 미래지향적으로 거듭나길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

**이창호** 선거관리위원장

지난 12월 10일 오리자조금관리위원회 제 3기 집행부가 선출됐다. 11월 30일 선거 공고, 12월 1일부터 5일까지 후보자 등록 기간을 거쳐 선출된 집행부는 자조금 관리위원장, 대의원회 의장, 감사, 관리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수에 맞게 후보자가 등록되어 무투표로 선거가 마무리됐다. 오리자조금 선거관리위원장인 이창호 위원장은 “자조금관리위원회의 집행부 선출이 원만히 마무리되어 기쁘다. 오리 산업 종사자들의 뜻이 모여 선출된 집행부가 오리 산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전했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오리협회장을 지낸 이창호 위원장은 “협회장을 지내고 오리 산업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았다. 위원장으로서 이번 집행부 선출이 잘 마무리되어 기쁘다. 선거가 없다는 것은 회원들의 뜻이 잘 모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집행부가 일을 하는 데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오리자조금은 2013년 1월 10일 의무자조금 사업승인을 받고 정식으로 자조금 사업을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닥친 HPAI 피해가 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조금 인상이 승인되고 거출 또한 잘 이뤄지고 있어 의무자조금 8년차를 맞은 오리자조금이 잘 정착되어 가고 있다고 본다는 이 위원장은 “오리 산업에 애정을 가지고 자조금을 내주시는 회원들 덕분에 오리자조금이 이만큼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올해 자조금이 100% 인상되어 2022년도에는 30억 원의 자조금 예산으로 소비홍보, 수급안정 등에 좀 더 효과적인 자조금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 축종에 비해 현저히 적은 자조금으로 효과적인 사업을 꾸리기가 쉽지 않다며, HPAI 피해, 오리고기 소비 감소 등에 상황대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자조금 인상에 대해 참여의식 고취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자조금 집행부가 현재 예산으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는 살림을 하고 있으나 재정이 넉넉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수급 안정, 소비 활동 등 사업 활성화를 통해 오리 종사자 소득 증진, 권익 보호 활동 등 선순환이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호 위원장은 아울러 최근 H5N1형 HPAI 발생을 비롯해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자조금 대의원, 관리위원 등 선거에 관심을 보내준 회원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거듭나는 오리 산업이 되기를 바란다면 새로 선출된 집행부에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